

완주생강,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

전북특별자치도, 학계·지자체·농업인과 협력해 미래 전략 모색의 자리 마련
봉동생강 역사·문화·환경적 가치 재조명…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 구축 모색

전북특별자치도가 완주군, (사)지역활력센터, 전북대학교, 완주생강전통농업시스템보존위원회와 함께 지난 19일 봉동을 주민센터에서 '완주생강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를 위한 학술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이 가진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조명하고,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를 위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자치도와 완주군 관계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 농업 전문가,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이후 5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세미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이지숙 사무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최명섭 팀장, 전북대학교 신병욱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지숙 사무관은 '농업유산 관련 제도적 동향'을, 신병욱 교수는 '전통 한옥과 완주 시암굴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발표했으며, 최명섭 팀장은 '봉동생강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전북특별자치도가 완주군, (사)지역활력센터, 전북대학교, 완주생강전통농업시스템보존위원회와 함께 지난 19일 봉동을 주민센터에서 '완주생강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를 위한 학술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위한 품질인증제도 마련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회에는 배재대학교 최홍희 교수, 농촌진흥청 정명철 연구사, 한국농어촌공사 백승석 부장 등이 참여해 완주생강의 차별성과 세계적 확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은 2019년 제13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전북자치도와 완주군의 지원 속에서 보존위원회를 중심으로 농업유산 활성화, 지역 기반 강화, 전통농법 복원 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특히, 보존위원회는 지난해 협력재단의 '농업농촌 지속가능 발전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환경지킴이 아카데미 운영 △신산상품 개발 △유통체계 마련 △도농상생 체력 프로

그램 운영 △농업유산 거버넌스 구축 △학술연구 및 홍보 제작 등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사업의 연장선에서 완주생강이 단순한 지역 특산물을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지속 가능한 농업유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보존위원회 공동경작단이 추진한 전통 농법 복원 과정과, 서울 소재 대학생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 '녹원'의 청년 농업유산 활동 사례가 발표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이를 통해 완주생강이 과거의 유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살아있는 농업유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완주생강 전통농법은 단순한 재배 기술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와 환경을 반영한 중요한 유산이다"며,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통해 완주생강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속 가능한 농촌 경제 활성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공직기강 확립 정부포상에서 '사전 컨설팅감사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북감사위원회, 대통령 표창 수상

사전 컨설팅감사·공직감찰 분야에서… '최우수상' 영예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공직기강 확립 정부포상에서 '사전 컨설팅감사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공직감찰 분야'에서도 임철승 감사총괄팀장이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되어 기관 및 개인이 동시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20일 '2025년 중앙·지방 감사협력 포럼'에서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감사공무원 2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북자치도는 포럼 중 지방감사 발전 방

향을 논의하고 기관 간 감사·감찰 전문성을 강화하는 자리에서 우수 사례를 발표하며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았다.

김진철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사전 컨설팅감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켜 도민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실효성 높은 감사 활동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추진

22억5000만원 투입해 90곳 정비… 도심·농어촌 빈집에 새 활력

전북특별자치도는 인구 감소와 빈집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 '2025년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24년까지 981동의 빈집을 정비했다. 올해에는 22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동당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하여, 90동의 빈집을 정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빈집 정비 범위를 기존의 농어촌 지역에서 도심 빈집까지 확장하고, 지원 대상도 농촌 유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한다.

또한, 또한,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거시설 개선형, 문화공간형, 주민공간 조성형으로 변환하는 사업도 통합 운영된다.

주거시설 개선형은 빈집을 리모델링해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

부, 노인,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지역문화·예술활동가, 농촌 유학생 등에게 임대주택이나 셰어하우스로 제공된다.

문화공간형은 지역 문화·예술 활동가들에게 빈집을 무상 임대해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민공간 조성형은 빈집을 철거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텃밭, 쉼터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 활성화와 정책의 핵심

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2024년 만족도 조사에서는 89%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도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2월 중에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상자 모집을 실시하고,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춰 운영할 예정이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단순한 건축 정비를 넘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다"며, "방치된 빈집을 재생하여 주거공간과 주민소통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이번 사업을 통해 따뜻한 보금자리와 활력 넘치는 공동체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전북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 방문… 운영 방안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9일 전북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를 방문해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피해 예방과 신속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는 △피해 상담 접수 △심리 상담 및 의료 연계 △치료·회복 프로그램 △법률 활영률 긴급 사제 △수사 동행 및 법률 지원 등 전문 상담원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88명의 피해자가 상담소를 통해 1,917건의 피해 상담과 치료·회복 프로그램, 법률·의료 연계 서비스를 지원받았다. 올해부터는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방문 상담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기관과 협력해 합동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는 전주시에서 위치하고 있으며, 피해자 및 가족 누구나 방문 상담과 전화 상담(☎063-717-1366)이 가능하다.

/이만호 기자

도, 식품기업에 농생명 혁신기관 그랜드 투어 지원

순창 지역 20개 식품기업 참여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순창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과 협력하는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연구 협력 및 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 인프라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에는 순창 지역 20개 식품

기업이 참여했으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을 방문해 연구기관별 특화된 연구·개발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참가 기업들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터진흥원에서 기능성평가지원센터, 소스산업화센터, 파일럿플랜트, 패키징센터 등을 견학하며, 식품 기능성 분석, 소스 개발, 시제품 생산 및 포장 기술을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는 기술사업화 지원, 투자유치 컨설팅, 농생명·농업자원 분석센터 등을 방문해 농식품

기업의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지원 방안, 투자 연계 프로그램 등을 살펴봤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는 GMP(우수약품제조관리기준) 설비, 창업보육센터, 식품분석센터, 비즈니스센터 등을 방문하여 건강기능식품 및 바이오소재 생산, 식품 안전성 분석,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논의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도립국악원, 5월 개관 앞두고 최종 점검

전북자치도가 도민들의 전통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국악 교육 및 공연 활성화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의 준공을 앞두고 최종 점검에 나섰다.

20일, 김형우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국악원 공사 현장을 방문해 시공 품질과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국악원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며 마무리 작업을 독려했다.

전북도립국악원 신청사는 총사업비

236억원을 투입해 덕진동2가 184-1번지에 건설 중이며, 연면적 6,300.67㎡(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다. 이곳은 국악을 배우고 연주할 수 있는 국악연수실(14개 반)을 비롯해, 다목적공연장, 회의실, 사무실, 휴게실, 샤워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국악 전문 공간으로 조성된다.

이 시설은 2023년 3월 착공 후, 올해 2월 준공을 목표로 5월 공식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 공고 2025-373호

‘드래곤 관광단지 진입도로 조성사업’ 보상계획(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공고

남원시에서 시행하는 '드래곤 관광단지 진입도로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 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의 명칭 및 위치
- 사업명칭 : 드래곤 관광단지 진입도로 조성사업
- 위치 : 전북 남원시 대산면 금성리 17번지 일원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남원시장(관광과)
- 주소 : 남원시 시청로 60(도동동, 남원시청)
다.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면적 : 6,490㎡(L=590m, B=11m)
- 내용 : 진출입로 조성, 상·하수 및 우수관 매설 등
라. 사업 기간 : 2025 ~ 2026
마. 사업시행자 : 남원시장(관광과)

2. 보상대상
가. 드래곤 관광단지 진입도로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권리일체 (세부내역은 개별통지하고 열람장소에 비치)

3. 토지·물건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25. 2. 21. ~ 2025. 3. 9.(15일간이상)
나. 열람장소 : 남원시 관광과 관광개발팀(☎063-620-6177)
다. 이의신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토지 조서의 내용 누락 등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음

4.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열람 및 감정평가 실시 후 2025년 4월 이후부터 보상협의 예정
나. 보상방법 :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함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 보상액산정 → 손실보상협의요청 → 협의(계약제결) → 소유권이전 → 보상금지급
※ 협의 불 성립시 → 수용제결 → 보상금 공탁
라. 협의조건 :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는 소유자가 권리를 해지한 후 협의에 응하여야 함
마.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1인) 추천 안내
- 추천요건 : 보상대상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 추천기간 : 보상계획공고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 추천제한 : 토지 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음
바. 보상금 지급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협의계약 체결 후 현금으로 계약입금 지급

5. 기타사항
가.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5년 2월 21일 남원시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